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준비판) 통권 제 42 호 / 발행일 : 2003년 5월 4일

## ‘5월 25일’ 무지개가 뜬다!

1부 - 한가족의 장, 2부 - 한 마음의 장, 3부 - 어울림의 장

오는 5월 25일에는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무지개축제가 열린다. 1부예배는 종전대로 드리며, 2, 3, 4부예배는 10시에 연합으로 드린다.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장년부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영아부에서 소년부까지는 부서별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예배가 마치면 1부 순서로 교회 앞

뜰과 주차장을 이용해 먹거리마당이, 운동장에서는 놀이마당이 열린다.

구역별로 준비해온 음식과 함께 먹거리장터의 각종 음식들이 교우들의 입맛을 당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운동장에서는 놀이마당이 펼쳐져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부 순서는 무지개운동회로서 남녀

노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회가 기다린다. 주님의교우들의 하나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다.

무지개축제의 하이라이트는 3부이다. 케이블TV의 채널 42번, ‘기독교TV’의 「최인혁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개방송으로 PK, 박강성, 위드, 조수아, 윤형주 씨 등 기독교 연예인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장애우 초청 작은음악회

### 작지만 따뜻함이 가득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어...



지난 4월은 장애인의 달이었다. 주님의교회 사회선교위원회 장애인부가 주최한 장애우 초청 작은음악회가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30분 구의동에 위치한 정립전자 강당에서 열렸다.

이 음악회에는 우리 교회 출석 장애인 교우들과 정립전자에 근무하는 믿지 않는 장애우들, 그리고 문동학, 정현희, 윤덕영 목사, 김소일 장로를 비롯하여 몇몇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1부에서는 정현희 목사의 식사기도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윤덕영 목사의 기도와 김소일 장로의 인사말에 이어 음악회가 열렸다.

우 숙 권사의 첼로, 강영은 자매의 피아노, 박영재 형제의 바이올린 3중주로 정립회관 강당을 아름다운 선율 속에 빠져 들게 했다. 임혜연 집사의 답례사에 이어 담임목사의 축도로 작은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이번 음악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여러 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레위파티였다.

7-10구역의 김창안, 한군희 집사의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배여있는 작지만 따뜻함이 가득한 작은음악회였다.

/ 백미경 기자

고등부 특별찬양예배

### 큰 감동이 넘쳐...

교회학교 고등부는 지난 4월 20일, 중예배실에서 부활절 특별찬양예배를 드렸다. 매월 마지막 주에 찬양예배를 드려온 고등부는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찬양예배로 준비하였다.

120여명의 학생과 30여명의 선생님들이 드린 이번 부활주일 찬양예배는 아직 주님 앞에 자유로운 영과 몸짓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는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김현령 전도사가 직접 인도하였다.

찬양예배는 이미 3월부터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이번 부활

절 찬양예배 때에는 그 감동이 더해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이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헌신을 다지는 가사들로 이어지며 그 동안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무반응(?)이던 학생들의 입이 드디어 열려졌다. 어색하여 못들던 손들도 서서히 들게 되고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특히, 고등부 우 숙 지도권사가 예배 때마다 지휘하던 기악 사역팀과 함께 찬양예배 때는 직접 팀원이 되어 첼로 반주를 해 주시는 모습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하나되어 주를 섬기며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를 더해 주었다.

5월의 찬양예배도 더욱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분을 경험하며 헌신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한다.

/ 박혜경 기자

성 금요일 칸타타

### 감동적인 ‘십자가상의 칠언’

4월의 가랑비가 축축히 내리듯  
주님의 은혜가 빗줄기처럼 내리

3월부터 준비해왔던 성 금요일 칸타타가 지난 4월 18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공연되었다.

살롬, 시온 연합찬양대 180여명의 단원이 먼저 은혜를 받고 부르는 노래로서 매우 감동적인 연주였다. 문동학 목사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설교 말씀도 성도들의 눈시울을 젖게 만들었다.

초등부 선교연주

### 천사들의 찬양



주님의교회 초등부 3, 4학년이 주축이 된 어린 천사들 39명이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의 평화교회에서 감동적인 연주를 하였다.

4월 27일 11시 예배에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였던 찬양을 8곡이나 불러 평화교회에 부활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였다.

평화교회는 권오정 목사와 오혜령 전도사가 시무 봉사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지향하는 교회이다. 개원 20년의 역사와 함께 100여명의 어른들과 청소년들(현재 8명)을 맡아 돌보아 왔다고 한다.

국내 선교위원회의 정재경 장로, 부장 서길원 집사를 비롯하여 최창섭 장로, 임현표 집사, 이동희 집사, 김영봉 집사, 조일송 집사 등이 동행하여 예배를 드렸고 특히 주일학교 김신혜(지휘), 고영아(반주), 김진규 선생님의 노고가 매우 컸다. 봄비에 푸르러지는 신록의 아름다움처럼 영롱한 부활 두 번째 주의 천사들의 찬양이었다.

/ 정해춘 기자

소프라노의 한나숙 집사, 테너의 김중호 교수, 베이스의 장 철 집사, 그리고 지휘자 박치용 집사, 반주자 은원주 집사, 안팎으로 도우시는 봉사부장 김은선 집사와 박호길 장로, 그리고 음악부장 이단열 집사, 음악위원장 윤좌원 장로, 김경빈 집사, 총무 최성진 집사, 지도 김성관 목사 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많은 교인들이 칸타타가 연주되는 동안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찬양대도 연합수련회 이후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장이 되었고, 그 즈음 본당 밖에서는 소리없이 4월의 가랑비가 축축히 내리고 있었다(관련기사 2면).

/ 정해춘 기자

칸타타 에피소드

## 이 집사가 그 날 뜨거웠던 이유

3월 23일(주일) 오후 1시, 이석현 집사는 4월에 있을 성 금요일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하여 찬양대 임시 임원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에는 주님의 교회 살롬찬양대와 시온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하고, 간식 및 진행 준비는 시온찬양대에서 맡기로 하였다.

4월부터는 토요일 연습 전에 김동근 집사가 준비하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참석한 이들은 칸타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자부한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당일 이 집사는 직장에서 워크숍이 6시까지 진행되었고, 그 후 겨우 택시를 잡았다.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최대한 빨리 갑시다.” 라고 말하니 오십이 훨씬 넘는 듯한 운전기사는 말하기를 지하철로 가는게 낫겠다고 하며 금요일 이 시각 이런 날씨에 택시타고 가면 길이 막혀 돈만 엄청 들고 시간은 훨씬 초과될 것이라고 말하며 구로공단역에서 내려주었

다. 아마 그대로 택시를 타고 왔더라면 막힌 길로 인해 안절부절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집사는 비록 좀 늦게 도착했지만 본당에 들어서니 많은 대원들이 와 있었고 이제 막 연습을 시작하고 있었다. 연습 시간부터 계속 서 있어서 힘이 들었으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잠시 쪼그렸던 마음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노래하는 동안에는 세 분의 멋진 솔리스트의 솔로와 합창할 때 박자를 안

놓치려고 집중하였고 어느덧 마지막 곡 ‘찬양합니다’를 부르게 되었다.

모든 곡을 다 부르고 성찬식 후에 좌석에 돌아가서 보는 영상 ‘집사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어두웠지만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훔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느꼈다. 밖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듯 축축히 비가 내리고, 주님의교회 안에는 180여명의 찬양대원과 1층을 가득 메운 청중이 함께 은혜받은 성 금요일이었다.

이번 연합찬양대 칸타타 행사를 통해 이 집사는 무엇보다도 지난 달 찬양대 연합수련회 이후로 주님의교회의 지체로서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장의 의미가 컸다고 했다. / 김용직 기자

성도 기고문

### 구제하는 교회

새해 벽두에 신선한 감동이 우리 교회에 조용히 물결치고 있었다. 어느 분이 일억 원의 구제헌금을 무기명으로 교회에 기증한 것이 1월 5일자 주보에 실린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 분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구제를 위한 그러한 결단과 실천을 하신 그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의 구제 활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교회라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라는 생각보다 우선 교회 건물의 겉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예수께서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됨을 바라셨지 커다란 교회당만을 바라지는 않으셨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다름 아닌 바로 구제와 선교일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숙히 물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구제 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가?’ 수재가 나면 구호기관에 송금하고, 자원자들이 현장에 몰려가고, 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를 돕

고, 몇 개의 복지기관을 지원하고, 은퇴 교역자를 돕는 일 등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는데서 끝나고 일시적인 물질적 도움에만 그치는 구제를 진정한 구제라고 보기에는 무엇이 빠진 것 같지 않은가?

작년 삼척 수재민 돕기에 참가하면서 휴게소에서 수십 대의 자원 봉사자 차량과 그 많은 봉사요원들을 만나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였다. 또 지난 캄보디아 의료선교에서 자신의 휴가를 바쳐 땀흘린 많은 의료인들을 만나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새해 아침 우리 교회에 물결쳤던 아름다운 감동이 큰 파도가 되어 어려운 분들의 가슴을 적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남을 도우면서 스스로도 은혜를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김소일 장로

성지순례시리즈 2

### 터키 항공기내에서...

1월 13일 오후 3시 18분,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구름 속을 날고 있다. 고도가 오르면서 안개와 구름은 아래에 있고 비행기 날개 위로 햇살이 들고 있다. 안개와 구름 너머로 빛나는 햇살처럼 나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언제나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집사들이 구역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회출석을 하지않던 이는 다시 주일예배에 참석하기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3구역에서는 남한산성 산행 등 행사를 통해 제2, 제3의 레위파티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탁 성도를 3구역에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장군갈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 임기택 기자

교회용어정리시리즈 2

###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동사 ‘기도하다’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써야 하는데 요즈음 이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와 같이 과거형을 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5분이거나 10분 전에 기도를 시작했으므로 간구한 모든 말들은 문법적으로는 이미 과거 또는 현재완료가 되므로 동사 ‘기도하다’의 과거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기도(祈禱)는 글자 그대로 그 핵심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간구다. 간구의 내용은 소원이며 소원은 미래 지향적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소원을, 즉 우리의 바람을 ‘기도하였습니다’로 끝낼 수는 없다. 기도의 핵심인 간구의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마무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내는 것이 좋다.

(기독교 용어연구위원회 제공자료)

면 좋으련만, 언제나 작은 일로 비틀거리는 나 자신이 안타깝지만 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몹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자를 옆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신대학원에서 선교신학을 공부한 어느 목사님과 대화는 신앙과 선교의 모든 영역에서 끝없이 이어져 갔다. 이 만남은 여행 내내, 그리고 다녀온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간간이 중국의 넓은 땅이 웅장한 산맥과 평야를 통해 눈에 들어온다. 땅에서 태어나 땅의 언어를 구사하며 땅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의 언어를 사모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대화와 묵상에 취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이윽고 낮선 풍광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를 태운 비행기는 열두 시간 반만에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지역 시각으로 오후 8시 43분(한국 시각으로 오전 3시 43분이었다).

여행의 처음 출발지인 안디옥을 보기 위해서는 아타튀르크공항에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다나공항으로 가는 것이 무난하다. 하지만,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그 공항이 일반 비행기들에게 잠정적으로 폐쇄되어 있어서 우리는 가지안텝에 있는 공항에 도착했다. 자정이 다되어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데 아주 이색적인 광경이 눈에 띄었다.

/ 하화주 집사(4-4구역)

레위파티 이야기 ②

### 장군갈비를 아시나요?

차량에 주님의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매우 반갑게 맞아 주시는 분이 있다. 그 분은 장군갈비를 운영하는 거여동 마당밭 탁동원 성도이다. 올해 가을부터 출석하다가 올 봄에 등록하였다. 요즘은 6월에 있을 세례식에 세례받기 위해 부인 서옥숙 성도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8교구 3구역에서는 3월 16일 탁성도의 초대로 장군갈비에서 제1회 레위파티를 열었다. 초대 대상은 구역모임이나 주일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남성들이었다. 자녀를 포함해서 모두 26명이 참석하여 저녁만찬을 함께 하였는데 다수의 남

【기획취재 / 성경공부반을 가다①】 3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불학기 성경공부반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새로운 주간 소식지로 단장한 함글함글에서는 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목적으로 각 성경공부반의 특징과 분위기를 스케치해 교우들에게 소개해주는 지면을 할애하기로 했다.

성경공부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 새롭게!」

## 새로워지기 위한 '영적 몸부림'의 시간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 새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김병모 목사가 이끄는 요한복음 성경공부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3층 초등부실에서 열리고 있다.

4월 23일, 찾아간 그 곳에는 120여명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가 놓여 있었고, 화창한 봄날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우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기도로 시작하고 있었다.

공부가 시작되기 10분 전부터 시작하여 20분간 드러지는 찬양시간은 성경공부의 기쁨을 배로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

김병모 목사는 한 시간 반 동안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가며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었고,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입각해 다양한 삶의 주제를 놓고 깊이 있게 생각하며 토론해보는 과정은 모두에게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발돋움하는 몸부림의 시간이 되었다.

공부시작 전 찬양을 인도하는 이중은 집사는 “상당봉사에 적용이 될까 싶어 선택한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 막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무심히 지나쳤던 부분이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였고 또 다른 한 분도 “여러 각도로 분석하며 깊이 생각하다보니 평상시에 실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연약한듯 하시나 강하시고 진지하시나 수시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김 목사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을 건고하며 따뜻하게 세워주고 계셨다. 따끈한 차와 풍성한 다과, 서로의 다정한 친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초등부실은 영과 육의 양식이 넉넉한 은혜의 장소였다. / 김영미 기자

사회선교위원회

## ‘터요람공동체’

사회선교위원회는 일명 ‘터요람공동체’ (일터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지난 4월 20일부터 주중 매일(월~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4층 당회원실에서 모임을 시작했다. 일하고 싶은데도 일자리를 본의아니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이들이 있음을 직시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 한다. 터요람공동체를 맡게 된 남장희 안수집사는 다음과 같은 물음과 답변으로 앞으로의 활동방향성을 밝혔다.

▶ 아직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할 곳이 없다 /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 갈 데가 없고, 마음을 열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 동병상련이 정답이 아닐까

▶ 나는 물질적으로도 힘이 든다 / 무엇이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인가, 기회가 없어서인가

▶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 스스로 모여 서로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 나누거나 도울 수 있는 것이 많다. 우선 홀로서기, 서로 잡아주기, 당겨주기, 밀어주기 등 / 나도 소속감이 있으면 좋겠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해주면...

터요람공동체와 함께 하실 분은 남장희 안수집사(016-502-8287)에게 문의 바란다.

2003 여선교회별 안내

## 여선교회장에게 듣는다

### ▶ 1여선교회

1여선교회는 1939년생 전의 A그룹과 1940~1944년생의 B그룹으로 나뉜다. A그룹 회장은 전은숙 권사이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월례회를 가지고, B그룹 회장은 이진효 집사이며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월례회로 모인다. 회장 이 집사는 올 한 해를 특히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으로 이끌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건강세미나와 생활체조강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종이와 형질로 여성용 장식 브로우치를 만드는 공예시간과 바자회를 열어 선교헌금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 ▶ 2여선교회

2여선교회는 1945~1948년생으로 구성되며 박경옥 권사가 회장이다. 월례회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회원들간의 친교와 모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3여선교회

3여선교회는 1949~1953년생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오영실 권사다.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이다. 오 회장은 3여선교회를 회원들간에 서로서로 잘 알게 되는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는 이를 위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 11일(화)에 3여선교회는 임동진 장로를 모시고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을 가졌고, 5여선교회도 초청받아 함께 참여했다. 이 날 임 장로의 간증을 들은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내조와 기도로서 남편을 세우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 4여선교회

4여선교회는 1954~1958년생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강승희 집사다. 정기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장애인이 모여사는 무지개선교원을 방문하여 아이를 목욕시키고 또 준비해간 반찬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한다. 강 회장은 앞으로 메이크업 강좌, 차밍스쿨의 모임을 계획 중인데, 아직 회원 수에 비해 참석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더 많은 회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4여선교회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의 주체가 되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 ▶ 5여선교회

5여선교회는 1959~1963년생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신연식 집사다. 정기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지체, 정신 장애아들 25명이 함께 기거하는 살롬의집을 방문하여 찬양과 봉사의 시간을 가지며 반찬도 가져가 이들의 식사에 돕는다. 회장 신 집사는 5여선교회가 회원들간 서로서로를 섬기고 살롬의집을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4월 8일과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前)한동대 교수 김명현박사를 모시고 창조과학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참석해 자녀들에게 창조설의 과학적 근거를 가르쳐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6여선교회

6여선교회는 1964년생 이후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상숙 집사다.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둘째 주 월요일에는 장애아동들이 사는 소망의집을 방문하여 목욕, 청소, 식사 등을 돕는다. 이 회장은 6여선교회가 화목과 교제를 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신연식 기자

### 5여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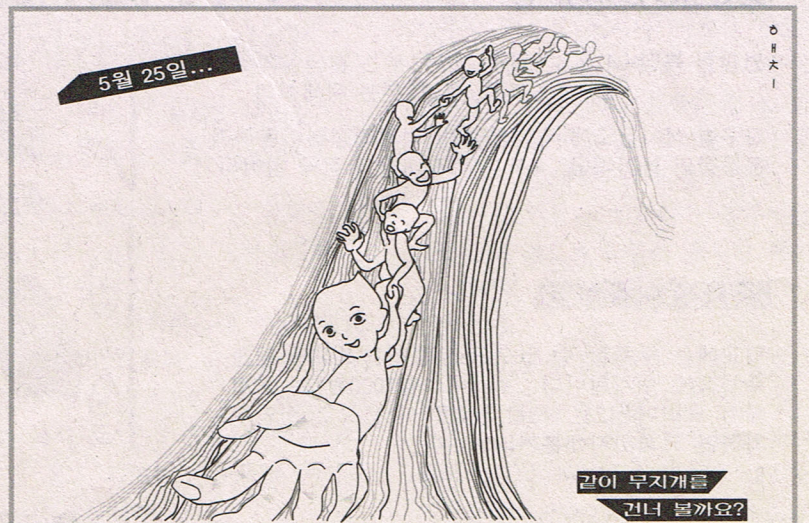
## 창조과학세미나를 듣고

5여선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찬양습실에서 김명현 박사를 모시고 창조과학세미나를 가졌다. 그동안 막연히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여러 과학자료들을 슬라이드로 보고, 유머 넘치는 설명을 들으니 진화론이 왜 이론만 무성한 학설에 불과한 것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창조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당히 과학적 설명을 해주는 부모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해준 시간이었다.

김 박사는 강의내용 중 오랜 세월이 걸쳐 진화가 이루어졌다면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생명체의 세포 하나하나의 질서와 형태는 설계자 없이는 도저히 성립이 불가능한 것

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각자만의 고유한 목적대로 설계도를 갖고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강의를 들은 20여명의 어머니들은 이런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았겠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대해 자녀들을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것, 또 합리적인 설명없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왔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 신연식 기자



## 교회소식

## ▶친교실 오픈



정식으로 오픈한 것은 아니지만, 제1집회실이 아름답게 개조되어 예배 후 교인들의 교제의 장소이자 아늑한 쉼터로 마련되었습니다. 독서와 커피 그리고 도서, 테이프, CD, 음료수 등과 교회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봉사는 봉사부 소속 이용분 집사, 정숙자 집사 등 4개조가 돌아가며 맡는다고 합니다. 벌써 비공식적이지만 3주째 애용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교우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세례식

유아세례식, 입교식,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은 5월 7일(수) 오후 8시에 중예배실에서 있으며, 유아세례자의 부모교육이 4월 27일, 5월 4일(2주간) 오후 1시 15분부터 2시까지 1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입교식 및 세례식은 6월 4일(수) 오후 8시에 중예배실에서 있으며, 입교 및 세례자 교육이 4월 27일, 5월 4일, 11일, 18일(4주간) 오후 1시 15분부터 2시까지 3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은 6월 1일(주일) 오후 1시 15분, 2층 중고수련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의 입교교육 및 세례교육은 5월 4일, 11일, 18일(3주간)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장소는 후보광고를 참조바랍니다.

## ▶교회결혼예식

교회결혼예식이 지난 4월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사무실 송국환 집사에게 문의바라며 담당교역자는 박의일 전도사입니다. 예식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 30분(1회)과 오후 5시 30분(2회)입니다.

## ▶교회장소 사용

전교우들의 합리적인 교회장소 사용을 위하여 금년부터 공식 예배 외의 모든 모임(월례회, 교사회, 구역, 선교회 등)은 반드시 사무실에 장소 사용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모임을 가져오신 정기적인 모임도 반드시 장소신청을 하여 주기 바라며, 교회사무실에 신청 확인된 모임을 우선하여 장소를 배정토록 합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주소가 [www.pcltv.org](http://www.pcltv.org)로 변경되며,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작업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교우들의 협조를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 ▶담임목사 주일설교

문동학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www.cctn.tv](http://www.cctn.tv)(기독교tv) 인터넷설교방송에서 동영상으로 지난 3월 2일 주일설교부터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정대심방

교구별로 가정대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가정은 대심방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심방일정은 교구별 사역자(구역장, 권찰)에게 문의해 주세요.

## ▶전화신앙상담 요일 변경

전화신앙상담 요일이 월요일~토요일에서 화요일~토요일로 변경됩니다. 시간은 종전대로 오전 9시~낮 12시, 오후 1시~5시에 ☎416-5183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구소식

▶김화자 집사(8-3구역)의 차녀 공미경 자매가 어머니의 오랜 기도끝에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부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록 소감은 "조용히 교회다니고 싶다"라고.

▶김근수 집사, 오점덕 권사(4-4구역) 가정의 3월 24일 득손녀하였으며,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 여선교회소식

▶2여선교회는 5월 6일 첫째 주 화요일에 남한산성 청수장에서 야외예배를 가집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집합해서 함께 떠납니다.

▶3여선교회는 5월 13일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 유아부실에서 코사지 강연회가 있습니다.

▶4여선교회는 4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5층 찬양대실에서 이동명 집사의 '바르게 걷는 워킹' 강의가 있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는 연습을 통하여 평소 자세 습관을 수시로 체크해야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5여선교회의 5월 월례회 모임은 5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께서 준비하신 강의를 100% 전달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알림

## ▶결혼사역팀 모집

결혼예식 사역지원팀에서 방송, 음향, 조명, 영상, 안내 등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봉사시간은 토요일 오후이며, 사역별로 2~3명 청년 이상의 봉사하실 교우를 기다립니다.

박의일 전도사(011-334-4076)에게 연락바랍니다.

## ▶영상미디어사역자 모집

영상미디어부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 및 사진카메라 촬영으로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예배실황 녹화, 중계 및 교회행사시 기록용 촬영을 위한 비디오부분 사역과 교회행사시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부분 사역입니다. 이창현 목사(011-466-4736)에게 연락바랍니다.

## ▶맥킨토시 기능자 모집

함글함글편집부에서 맥킨토시 및 Quark작업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이창현 목사(011-466-4736)에게 연락바랍니다.

##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기획부에서 그래픽디자인 작업을 위하여 홍보기획 및 출판업에 종사하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김원재 목사(019-357-9861)에게 연락바랍니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 문동학
- 부목사 : 김병모 김성관 김원재 윤덕영 이상훈 이창현 장현희 정희성
- 전임전도사 : 김현영 박의일
- 교육전도사 : 고승재 김보선 김진경 유상렬 이영란 최인영 추정순 황병기
- 사무장로 :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설 김경진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 황기연 김현덕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http://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글함글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hylee@korea.com](mailto:chhylee@korea.com)

## 무지개축제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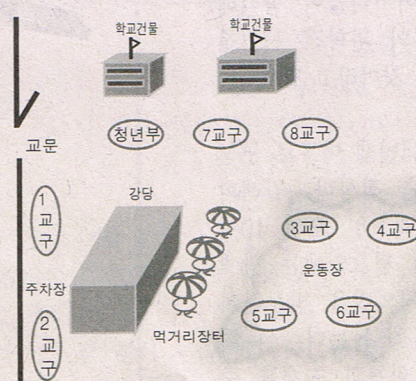
편안한 복장- 1,2,3,4교구, 청년1부는 흰색상의  
5,6,7,8교구, 청년2부는 적색상의

교구별 식사장소에서 점심먹기. 먹거리장터이용하기.  
운동장의 놀이마당, 축제마당 자녀들과 적극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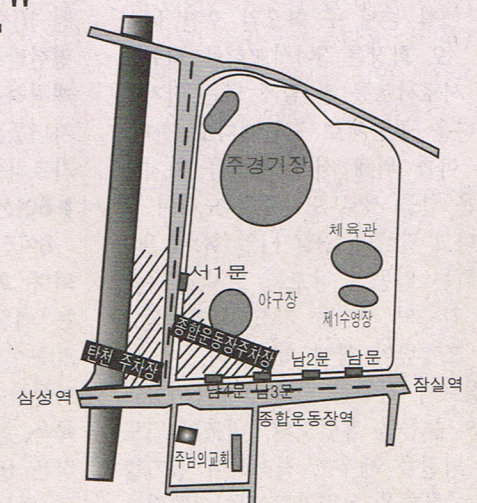
## 주차장 이용하기

학교에는 주차할 수 없으므로 종합경기장과 탄천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주차비(1일2000원)는 교회에서 드리며 남2문, 남3문, 남4문, 서1문으로 진입 주차하면 교회까지 5분거리입니다.

## " 무지개축제가 5월25일로 연기됩니다."



● 교구별 식사장소



● 주차장약도